

B-1. 변형 유두 보존 술식(Modified Papilla Preservation Technique)을 이용한 조직 유도 재생술에 대한 중례 보고

황소영*, 양승민, 설양조, 계승범, 이영규, 손성희

삼성의료원 치과진료부 치주과

치주 치료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주염에 이완된 치근 표면에 신생 결합 조직의 신부착을 도모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치주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다. 차폐막을 이용하여 치은 상피로부터 유래하는 세포를 결손부위로부터 배재시킴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조직 유도 재생술은, 현재까지 임상 부착 수준, 탐침 치주낭 깊이 등의 임상적 평가에서 유의할 수준의 향상을 보였으며, 조직학적 평가에 있어서도 동물과 사람으로부터 채득한 생검 표본을 분석해 본 결과 신부착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직 유도 재생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중 차폐막의 노출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그 빈도가 70 - 80 %에 이른다.

개방 판막이나 변형 Widman 판막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하게 치간 유두를 보존할 수 없고, 따라서 차폐막 상방으로 조직의 일차 통합이 어려워 진다. 이러한 이유로 차폐막 노출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Cortellini 등은 Takei 등에 의해 고안된 유두 보존 술식을 변형한 술식을 고안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치간 유두를 완전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측 판막의 상방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간부에서 차폐막을 용이하게 덮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변형 유두 보존 술식을 이용한 본 임상 중례들도 차폐막의 노출 없이 임상적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여 보고하고자 한다.